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2004년 인도네시아 해변을 덮친 가공할 쓰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또 하나의 쓰나미가 있다. 바로 영어 광풍(狂風)이다.

영어 광풍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 파고가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온 국민은 '영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한 수많은 영어교육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리다간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을 무력화시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온국민 '영어 바다'서 허우적

우리나라 교육부의 1년 예산이 약 30조 원인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3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중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15조원이라고 하니 이 문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더구

나 자녀의 영어교육 때문에 생긴 이른바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수준의 정책들은 해결의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 목표를 뚜렷히 해야 한다.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전 국민이 영어회화를 잘하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이 영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나라와 개인이 차이가 나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말이냐, "1인당 소득이 5만 불 이상의 선진국들은 자국어 외에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배우도록 준비된 나라다"라고 한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말로 볼 때 새 정부는 영어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어디까지나 전 국민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면 사교육비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인 듯하다. 이래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수학적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대학시험에 영어를 제외해야 한다. 그러면 영어 광풍이 일단은 수그러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구상하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이라면 간단한 한국어쯤은 익히고 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것이 어찌 우리의 잘못인가.

중국어 배우고 싶은 학생은?

새 정부는 왜 꿈 많은 청소년들을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 허우적거리게 하는가. 학생들 중에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자도 있을 것이고 독일어·불어·스페인어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읽어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기껏해야 '영어로 말하기'라는 저급 영어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적어도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백년 후에도 과연 '영어로 말하기'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을지, 백년 후에는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잘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발 온 국민을 영어라는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따름이다. <성균관대 교수·디산연구소 제6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쓰나미'

고 있는 영어교육(사실 이 영어교육도 회화 위주의 질풍같이 교육이긴 하지만)을 실시하면 된다. 그래도 영어로 태교를 한 다든지 원어민 발음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르는 수술을 하는 미친 자들은 여쭙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도대체 왜 새 정부는 영어에 '올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전 국민이 영어를, 그것도 '영어로 말하기'를 잘해야 하는가.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영어를 하면 안 되는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길을 물을 때 영어로 대답을 못하면 또 어떤가.

시설

'전소된 송례문' 광주·전남은 안전한가

국보 1호인 송례문(남대문)이 불에 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600년을 지켜 온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5시간도 채 안 돼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화재는 방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드러냈다. 송례문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8대와 상수도 소화전인 소방시설의 전무였다. 일반인의 접근이 쉬워 방화위험에 노출됐고, 조명시설로 인해 누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야간경비는 무인관리시스템에 맡겨 놓았다는 할 말을 잃게 한다.

화재 진압도 문제부상이다. 초기 진화 과정에서 발화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 불길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다. 소방당국,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이 허둥대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대형 참사를 부른 것이다. 소방방재 능력과 비상사태 대응 태세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보 1호의 방재 시스템이 이렇진대 다른 문화재는 오죽하겠는가.

광주·전남지역 문화재의 화재예방시스템 역시 허술하기 그지없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관리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소방안전 점검을 받는 목포 문화재는 325개에 달한다. 이들 문화재는 대부분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지만 소방시설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화기와 소화전 등 기본적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66%에 불과하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갖춘 곳은 40곳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문화재 관리·보호에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자체 등 관계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목포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송례문 참사'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당-민주당 합당 쇄신만이 살 길이다

대한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11일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창당 주도한 새천년민주당 내 신당파가 지난 2003년 9월20일 별도의 교섭단체를 등록하면서 분당한 뒤 4년5개월만이다. 양당이 민심을 수용해 '통합민주당'으로 거듭난 것은 바람직하다.

양당의 통합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구여권 단일 진영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중도진보 정권 10년을 주도했던 양당은 구식력을 잃고 지리멸렬한 양상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대세론'과 '견제론'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나라당에 안정적 의석을 허용해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논리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으려면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대세론이 우위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역대 선거에서 견제세력 없는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어느 정당의 지지 여부를 떠나 건전한 견제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정 정당이 행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정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여론도 양당의 통합을 촉구한 편이었다. 특히 본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주민의 71.1%가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양당이 통합을 전격 선언한 것도 총선민심은 단일대오로 치러야 한다는 민심을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통합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난제는 수두룩하다. 우선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공천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총선용 합당이란 것도 부담이다. 국민들은 과거 왜 분당을 했는지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6조7천억 달러'를 들어 이달 초까지 세계 증권시장에서 증발해버린 돈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추산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 상상이 안된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대한민국의 올 1년 살림살이의 20배 가량이니까, 그렇게 집착할 할 뿐이다. 모두 미국발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 글로벌 증시를 덮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러한 중국의 갑부들도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엄청난 재산을 날렸다. 포브스지가 지난해 아시아 최대 부호로 선정된 비구이 위안(魏佳) 창업자의 딸 양후이엔은 최근 3개월 동안 760억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9천억 원을 증시에서 잃었다. 지난달 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절반이 날아갔다. 중국 부호서열 3위에 올라 있는 중국 최대 민영기업 푸싱지의 귀광창 회장도 보유주식 가치의 3분의 2를 날렸다. 중국, 터키,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은 물론 유럽까지 전 세계가 폭락장 공포에 떨고 있다.

증권선 물가래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110조 원이 국내증시에서 사라졌다. 모두가 '미국증시' 때문이다. 설 연휴에 문을 연 일본, 홍콩, 인도 증시는 하락폭이 미국의 2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증권 전문가들은 주가가 급락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침체되더라도 한국증시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뜻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들먹인다. 그리고 '동요 말라'고 투자자들을 다독인다.

그렇다면, 미국증시가 급등하면 한국증시도 한국증시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뜻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들먹인다. 그리고 '동요 말라'고 투자자들을 다독인다.

디커플링



가 급등하면 한국증시도 한국증시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뜻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들먹인다. 그리고 '동요 말라'고 투자자들을 다독인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유길원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제1조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잃은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요보호아동(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버려지는 아동의 수가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18살 미만 요보호아동이 한 해 평균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원인별로 보면 빈곤 및 실직 등이 55%(2608명)로 가장 많고 미혼모의 아이(29%, 1388명), 비행·가출·부랑아(9%, 414명), 버려진 아이(6%, 269명), 미아(1%, 27명) 등의 순이다.

됐다.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부모가출, 이혼 등에 의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1990년초 어린이재단 등 민간기관에서 처음 시작돼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 정부가 시범실시하였으며 2003년 전국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면 확대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을 준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은 입양과 유사하지만 수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법적 권리나 책임이 없고 아동보호도 장기보다는 단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입

위기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

요보호아동의 증가는 빈곤, 실직, 가정폭력, 미혼모의 증가 등이 주요인이다. 이는 곧 원인이 해결되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느 하나 가정의 보호 없이는 양육될 수 없고 가정의 붕괴는 결국 아동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부모 한 쪽이 가출했을 때, 가정 폭력에 시달릴 때, 이혼으로 부모 양쪽이 양육을 기피할 때는 가정과 사회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시설보호는 집단 수용보호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50여년 전에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으로, 입양으로 양육 방법을 바꾸도록 권고하면서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하면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주를 이

양과 다르다. 가정위탁보호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이 가정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한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정위탁을 통해 정이 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위탁제도는 입양이 어려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입양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이고 국가의 장래인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은 세계 최저 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최우선 해야 하는 과제이다. 위기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조례·규칙 만들어 길거리 흡연 규제해야

지하철 출구를 막 빠져 나오는 순간 앞서 가던 남자 4명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담배를 꺼내 물었다. 임신 4개월째이자 두 살바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나는 숨을 멈추고 코를 막았다. 담배 연기를 피해 멀리 떨어지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옆으로 방향을 바꾸어도 또 다른 흡연자와 맞부딪혔기 때문이다.

길에서 이 같은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들은 아주 많다. 특히 피할 길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그 고통이 훨씬 더하다. 더군다나 임신부들에게는 길거리 흡연은 무서운 병

일 수밖에 없다.

담배 연기를 자주 맡으면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태아에 옮겨져 태아가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거리에도 흡연구역 설정하거나 아예 거리 흡연을 금지시켜야 한다. 특히 전철역 출입구 같이 사람들이 일시에 소통하는 공간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절대다수의 비흡연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 길거리 흡연도 적절히 규제해 주길 바란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뱀의 특수 기관들



네발 달린 포유류들이 보기에 파충류들은 엄청 불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뱀은 '발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진화는 그들을 발 대신 비늘을 세우게 했고 온 몸의 근육을 리듬이 갈라져 만들어 마치 땅 위에서 나는 듯이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리 빠른 편은 아니지만 풀숲이나 작은 구멍만 주변에 있다면 얼마든지 천적들보다 재빠르게 달아날 수 있다. 물론 사냥을 하는데도 전혀 구애가 없다.

사냥을 할 때는 조용히 기다린다. 마치 개구리가 혀로 파리를 낚아채 듯 몸의 앞쪽을 이용해 순식간에 사냥감을 덮친다. 그런 후에 비교적 체구가 작은 독사류는 독을 주입한 후 희생동물이

죽기를 앞서서 차분히 지켜보고 큰 구렁이류는 엄청난 압박을 가해 희생동물을 압사시킨 후 천천히 한 번에 삼킨다. 만일 내가 구렁이에게 잡힌 쥐라면 제발 빨리 죽여주기만을 소원했을 것이 다.

사냥감보다 느린 주력은 절대감을 지닌 침단기관에 의해 보완된다. 뱀의 입안에 있는 두 개의 '아름스' 기관은 혀로 모아들인 주변 냄새분자를 정확히 판별해 내는 역할을 한다. '피트' 기관은 코와 눈 사이 양 옆과 뒷쪽에 마치 침표처럼 뚫려 있는 곳인데, 이곳은 바로 열감지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체온을 가진 모든 동물들의 입체 영상이 뇌에 그려져 감각한 어둠 속에서도 도주와 사냥을 가능케 한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빼앗긴 문화재 되찾기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건가

문화재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자존심이다. 문화재는 과거 삶의 투영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기도 하다.

얼마전 미국 예일대학이 잉카문명의 유적지 마추픽추 유물 4천여점을 폐루에 반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놀랐다. 이것들은 1911년 재발견 당시 미국 고고학자들이 미국으로 반출한 것들이어서 놀라움은 더욱 컸다.

이 같은 결정은 약탈·도난 문화재의 반환을 놓고 날로 확대되는 약탈국과 피약탈국 사이의 갈등 해결에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또 이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폐루정부의 노력은 우리 정부도 배워야 할 귀감이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 297책을 약탈한 프랑스는 물론 일제 때 수많은 문화재를 반출한 일본에 대해서도 그저 눈치만 살핀다. 프랑스로부터 때때로 차량을 도입한 대가로 겨우 1책 받았는데 그마저도 빌려왔을 뿐이다. 일본 도쿄와 교토 국립대학, 공대청 수장고에 쌓여 있다는 우리 문화재 수만 점에 대해서도 파악조차 안 돼 있다. 얼마전 도쿄대에 있던 왕조실록의 반환도 순전히 민간이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다.

정부는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일본이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 환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문화재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그 문화재를 만들었던 선인들에 대한 후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distribution info.